

지 상 중 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2>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입제 : 불기 2549년 5월8일
■강사 :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 · 종교학)
■주제 : 서양인은 한국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조건없는 희생’ 숭고한 전통 되살려야

우리에게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 늘상 먹어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없을때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고마운 것처럼 해체되고 파괴됐을때 비로소 그 본자리를 절감하는 가정. 언제 돌아가도 따뜻하지만 한 가족간의 사랑이 그것이다.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주지 승암은 본사와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정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해야 나라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구국구세(救國救世)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첫 번째 법회에 이어 도피안사는 5월 8일 프랑스 출신 가톨릭 신부인 서명원 대종교학과 서명원 교수를 초청,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가정의 가치' 동서양 따로 없다

우선 서양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 습관의 차이를 모두 고려한다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서명원 신부는 이날 강연을 시작하며 '모든 사람이 나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동서양 가정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누구에게나 가정을 이야기하고 걱정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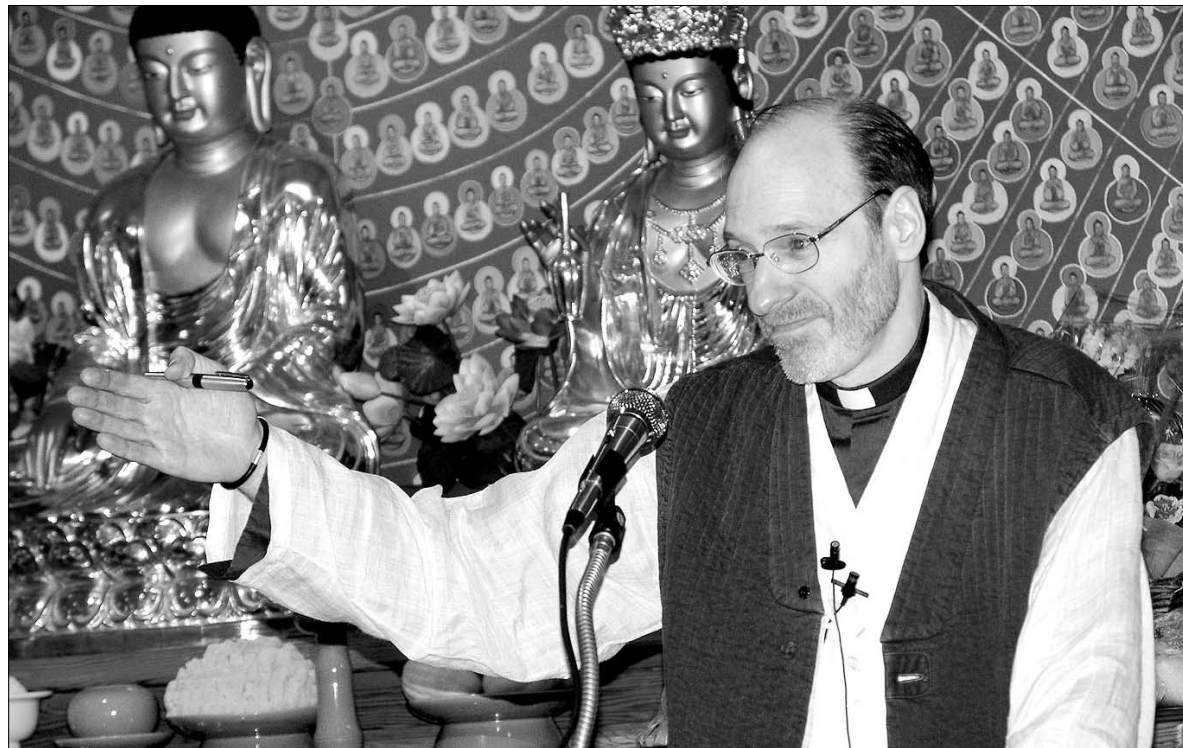
서명원 신부는 먼저 40여 년간 캐나다와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 살며 경험한 서양의 가정에 대해 소개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대가족은 해체되고 이를 대체한 소가족 제도가 정착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동거하며 아이를 낳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고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동거자를 우대하는 법률장치까지 만들어질 정도죠.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동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도 해요."

동서양 가정의 모습, 가족 제도는 '대동소이'하다. 그렇기에 가정들이 겪는 문제들도 비슷하다. 프랑스의 가정문제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혼문제. 이제 한국의 이혼율은 30%를 육박하고 있다.

우리 시대 가정도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이혼 고부갈등 청소년 탈선 등을 비롯해 어찌보면 이 시대의 아픈 상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다. 병이 난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

"파리 사람들의 이혼율이 50%를 넘긴 것은 옛날이죠. 생활 환경이 각박해지면서 점점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녀 양육과 교육, 이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죠. 평생 이혼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한국사회의 온갖 문제들이 가정에



어린이날인 5월 8일,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에서 강연한 서명원 신부는 "우리 시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희생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목적 사랑·대화 부족 극복해야 '화목'

서 비롯되듯 프랑스도 급증하는 이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가정은?

서명원 신부는 서양인이 처음 한국사회와 가정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연애결혼을 하는 프랑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중매결혼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죠. 결혼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좌우하는 것을 서양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동아시아의 특징인 남이선호, 남존여비 등도 낯선 문화였어요."

서명원 신부는 문화나 전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변화하는 시대를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하나를 고집하려는 것이 문제라든 문제란 것이다. 서 신부는 "미성년자가 결혼에 대해 충분히 알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결혼 경험을 가진 어른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는 중매결혼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유연성의 부족'과 '대화 부족'을 한국 가정의 문제로 꼽았다. 부모를 만아들 맘머리나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고부갈등과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부모를 모셔요. 만아들, 맘머리나가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죠. 부모를 모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해요."

서 신부는 낱말과 이혼 등을 하기에 앞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의 소중함 가르쳐야

서명원 신부에게 가장 도드라져 보인 한국가정의 특징은 '희생정신'이다.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산다"며 희생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한국의 어머니'는 서양인의 눈에 수수께끼

처럼 비쳤다고 한다. 서 신부는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핵심적이예요. 그런 희생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자식을 존경받는 인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강대에서 벌어진 입시비리의 원인으로 희생을 모르는 '이기적인 교육'이라고 서 신부는 지적했다. "당사자인 교수님을 아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눈먼 사랑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서 신부는 구국구세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부부,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꾸준한 대화였다. 서 신부는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한 경우 가정문제가 극단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 질문들

강연이 끝난 후 열린 질의시간이 진행됐다. 이경연(47·안성)씨는 "한국 가정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했다. 서명원 신부는 "부모를 정성껏 모시려는 생각, 조상 산소를 좋은 곳에 모시는 것, 가족들이 함께 매해 성묘를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다"며 "서양인들에게는 가족과 조상의 의미를 경험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안성시 시의회 윤용규(59) 부의장은 "나쁜 서양문화 때문에 한국의 가정문화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신부는 "서양 문화 모두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은 복합적이기에 혼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의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사진:강양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서명원 신부는 가톨릭 신부의 상징인 로만 칼라 위에 '승복'을 입는 사제로 알려진 서명원 신부(52·본명 베르나르 서네갈). 서 신부는 10여 년째 한국에서 참선하며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연구하는 특이한 종교인이다.

1984년 한국을 처음 찾은 후 95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며 한국불교를 배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성철 스님의 생애와 전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올해부터는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한국불교를 강의하고 있다.

그는 96년부터 한국의 참선 수행단체인 선도회와 인연을 맺고 하루에도 수차례 참선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소신은 힘차다. "전통을 지키려는 한국불교와 새 문화를 만들려는 한국불교 사이에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져요. 서양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불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Cultural Center (불교문화센터) featuring various courses like 'Seo-hwa' (서화), 'Health' (건강), 'Traditional Buddhism' (전통교양), 'Language' (어학), and 'Dharma' (신행). It includes a detailed schedu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